

6.26~28 - 5월 28일 이월, 2월 28

성고문 대책위원회 합동 경과보고

6.30 인천고도소 저권인숙 성고문 사건조사

5.3 가족을 통해 상당한 사실을 알게 됨

5.3 구속 가족 등 피해자 부모, 언니, 오빠 설득하였으나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는 것은 반대하고 가해자 문귀동형사에게 개인적 사과를 받겠다는 의사

5.3 가족들 면회하고 나온 뒤 양심수 전원이 (70명) 문귀동 처벌, 서장, 수사과장, 내무장관사임, 군독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다 함

권인숙 인권변호사 요청, 각 단체 여성단체 등에 협력요청을 간절히 원한다 함

인권위에 전화. 상당히 시급함을 알리고 변호사선임 요청을 의뢰함

검찰청에 나갔다는 소식 듣고 법원으로 갔으나 만나지 못함

오후 3 시경 이돈명, 이상수 변호사선임이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

7.1 김희선원장, 이미경, 이영순, 평우, 민가 등이 대책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7.2 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여성의 전화, 여신학자, 기노, 노협, 민가, 여평, 민불 의장단

들이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 경악과 분노, 파국적 정세에서 오는 말로 라고 인정.

여성인권 정책

1. 홍보전단 2. 부천경찰서 항의시위- 7.4 오후 3시

3. 관심있는 단체 공동 대처방안 모색 4. 전 국민 여론조성

오후 2시 김희선원장 연행(남영동 대공본실)

변호사접견, 본인진술 내용 협조 요청. 변호사면담요청- 계획적, 의도적 성고문

733 9시 전단 인쇄

7.4 김희선씨 구속 발표

오후 1시 대책논의(박영숙, 이우정, 윤영애, 연씨씨 인권위, 여전, 이미경, 이

이영순, 등이 참석) 성고문 사건과 연관.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핵심활동인자를 구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면회, 기자회견(공 개항의서 발표)

오후 3시 교 여연부회장, 윤충무, 이미경, 이영순 부천경찰서에서 부서장, 부상함실장

등에게 강력한 항의와 경고

-정권적 착원의 문제 -,관계자 강력한 처벌 요구 -.전사회화한다고 경고

-.서장실에서 5시경 쫓겨남

부천서의 주장 1, 일방적 의견 2본인의 생활배경을 아느냐(지독한 문제학생, 사생활 논란으로 규정) 3사실이 라면 처벌해야 한다고 함

동원된 일부가 극동 아파트에 전단배포

오후 7시 인천 동인교회 기도회에 참석 (01121226 112제14호) 7.7 3월 15일

7.5 기여민 창립예배- 성고문 홍보 및 전단배포 (01121226 112제14호)

7.7 9:30 기자회견 - 원장 구속 및 성고문 규탄 성명서 발표

회의 1.생태위를 성고문 대책위로 바꾸고 참가단체 증가 (3개단체)

2.기여민, 민가 부위원장으로 선임

3.7.9 공동대책위 구성에 대해 논의구조에 위원장, 박영숙, 이부위원장 참석키로 함

19: 30 인천 가톨릭센터에서 "성고문 자행하는 군독추방대회"에 참석하였으나 경찰의

방해로 옥내집회보쇄

7.8 가여사 모임에서 홍보, 서명받음

사히, 교회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7.9 여변호사가 피해자 면담키로 함

변호인단, 정경, 여성단체연합, 인권위 등이 참석, 변호인단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여단연, 범종교 단체에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확대 활동키로 함

12:00 인권위에서 여단연 실무회의(의장단, 기여민, 경우, 여전, 민가, 등이 참석

12일 부천극동 아파트 앞에서의 항의 시위 계획

수비회 공동대책위 참석 고섭, 서울 고구경 방문 홍보 요청, 전전상 집회장소 협의요청,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임

7.10 9:30 출발 (함변호사, 이우경위원장, 박영숙 선생, 이영숙수녀, 이영순, 민가 30여명)

부천시 항의 경고하러 감.옥봉한을 면담, 항의

11:00 함산성, 김동환 선생과 검사 면담

14:00 서울 도착

성명서 초안에 대한 검토(11일 기자회견) 12일 부천시위에 대한 전단작성 및

학생들의 여단연에 함께 역할하고 싶다는 입장에 대한 논의

7.11 10:00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여단연성고문 대책위(박영숙) 장상연(김순 자수녀) 송가희(청화스님)

연씨씨인권위(김상근목사) 천사협(제정구)가 부천시 성고문 대책위구성

실무자구성 이미경, 이영순, 양요한수녀, 사무국장스님, 김동완목사, 이명준

전담실무 이영순 (타단체가 참가할 의사가 있으면 참가시킨다)

회의 사회: 박영숙